

수입잡곡 열풍에 설자리 잃은 국산잡곡

웰빙·해외직구 바람 타고 전통시장까지 파고들어

범국민적 국산 소비운동·생산 유통여건 개선 시급

웰빙과 해외직구 확산으로 신종 수입잡곡이 전통시장까지 빠르게 파고들면서 국산잡곡시장 붕괴에 대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정부나 유통업체 등은 국산잡곡의 소비촉진을 위한 판매전략이나 홍보활동을 찾아보기 어려워,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책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15일 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에 따르면 국내 잡곡시장이 위축되는 속에서도 일명 '렌즈콩'으로 불리는 렌즈콩을 비롯해 이집트콩, 귀리, 퀴노아 등 신종 수입잡곡류의 매출은 큰 폭으로 늘고 있다. 롯데마트는 올 1분기 자체 잡곡류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과 견줘 5% 감소한 반면 이른바 '슈퍼푸드 잡곡' 매출은 32배가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 업체가 밝힌 슈퍼푸드 잡

곡에는 렌즈콩·귀리·퀴노아 등 신종 수입잡곡 외에도 치아시드·아마시드 등 먹는 씨앗도 포함돼 있다.

이에 따라 롯데마트의 전체 잡곡류 매출 가운데 슈퍼푸드 잡곡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1분기 0.2%에서 1년새 10.3%로 50배 뛰었다.

광주 서구 양동시장에서 잡곡을 파는 양모씨는 "몸에 좋다고 입소문이 나선지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렌즈콩이나 귀리를 찾는 손님이 부쩍 늘었다"고 말했다.

수입잡곡의 빠른 성장세는 국내 수입량에도 반영되고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1~4월까지 렌즈콩·이집트콩·귀리·퀴노아 등 네 잡곡류의 수입량 합계치는 1만 6438t. 지난해 같은 기간(2011)보다 무려 721.5%가 늘었다. 이들 잡곡류는 지난해

에도 전년 대비 588%나 성장했는데 올들어선 이를 133%포인트나 웃도는 성장률을 보였다.

여기에서 인터넷을 통한 해외직구나 이른바 보따리상, 해외여행객 등이 들어오는 몰량 등 공식 통계에 잡히지 않는 부분까지 감안하면 실제 국내에 유통되는 물량은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최근에는 전통시장의 노점상에서까지 렌즈콩 등 수입잡곡을 팔 정도다.

광주 북구 말바우시장 지역에서 잡곡 등을 취급하는 한 상인은 "특정 농산물의 값이 급락할 경우 생산자단체나 유통업체들이 톨품 분적 건강기능성 등 우수성을 홍보하는 것은 기본이고 심지어 '더 먹기 운동' 등을 펼치지만 유독 잡곡분야에선 눈에 띄는 소비촉진 활동이 거의 없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유통 전문가들은 열악한 국산잡곡의 생산·유통 여건이 시장 위축을 불러왔다고 분석했다. 국산잡곡은 그 해의 가격에 따

라 이듬해 재배면적이 크게 달라지는 등 재배과정에서의 품목 유통성이 매우 높은 데다 고정 수요처 확보가 어렵고, 생산·유통업체 또한 영세한 실정이기 때문에 수입잡곡에 뒤처진다는 것이다. 또 국산 잡곡의 경우 품목이 다양한 것도 업계의 결속력을 높이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 현재 쌀을 제외한 곡물류의 경우 해당 곡물을 아우르는 대표조직이 결성된 것은 밀·옥수수·콩·고구마 등 4개뿐이다. 실제로, 최근 업계 관계자들이 '(가칭)전국잡곡협회'를 구성하기로 뜻을 모았지만 참여 희망자간 구심점이 약해 공식 출범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농업 관계자들은 국산 잡곡 시장을 침체 수렁에서 건져내기 위해선 범국민적인 소비촉진 활동이 절실하며 잡곡 관련 생산·유통업체를 대표하는 책임있는 조직을 정비하는 것도 급선무라고 촉구 하고 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042.32 (-9.85)	금리 (국고채 3년) 1.76%
▼ 코스닥 705.85 (-6.55)	▲ 환율 (USD) 1117.30원 (+2.60)

증시 가격제한폭 ±30% 확대 첫날 동요없어

거래대금 평소보다 줄어

가격제한폭이 ±30%로 확대된 첫날인 15일 주식시장은 큰 충격 없이 마무리됐다. 추가 변동폭이 종전 가격제한폭인 ±15%를 웃도는 종목들이 등장했지만 그 숫자는 많지 않았다. 시장이 약세를 보인 것은 가격제한폭 확대보다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 대한 경계감,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등 대내외 약세 영향이 컸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이에 따라 전반적으로 투자심리가 위축된데다 가격제한폭 확대에 따른 '누치 보기'도 나타나면서 거래대금이 평소보다 줄었다.

이날 유가증권시장의 거래대금은 4조 7659억원 규모였다. 이는 올해와 이달 하루평균 거래대금 5조4200억원과 6조 4400억원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코스닥시장의 거래대금 역시 3조3023억원 규모로 올해 일평균 거래대금(3조4900억원)이나 이달 일평균 거래대금(4조 2000억원)을 밑돌았다.

종목별로는 7개 종목이 상한가로 마감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계양전기 우, 태양금속, 삼양홀딩스, 태양금속우 등 4개 종목이 가격제한폭까지 올랐다. 코스닥시장에서는 제주반도체, GT&T, 대호피앤씨우 등 3개 종목이 상한가를 쳤다. 하한가를 기록한 종목은 없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광주·전남·전북 분쟁조정 이용 건수 매년 증가

광주와 전남·북에서 불공정 거래 행위를 둘러싼 분쟁을 조정으로 해결하는 '분쟁조정제도' 이용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하 조정원·원장 배진철)이 공정거래와 가맹사업거래, 하도급거래, 대규모유통업거래, 약관 등 모두 5개 분야에서 분쟁조정 협의회를 운영하면서 분쟁조정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조정원은 광주와 전남·북 지역에서 지난해 접수된 132건의 분쟁조정 사건 가운데 95%인 126건이 조정에 성공했다고 15일 밝혔다. 지난해 분쟁조정 성립에 따른 피해 구제액과 소송비용 절감액 등 경제적 성과는 19억3000만원에 달했다. 광주와 전남·북 지역의 분쟁조정사건 접수건수와 조정성립률은 2012년 108건에 78%, 2013년 136건에 89% 등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한편, 조정원은 '2015년도 제7차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를 16일 광주시 서구 농성동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광주교육센터 상공실에서 개최한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광주 5월 전월세 거래량

이사철 끝나자 15% ↓

지난 5월 광주의 주택 전·월세 거래량이 전월보다 15% 가까이 줄었다. 봄 이사철이 끝나자 전·월세 수요가 매달 수요로 전환되는 추세가 지속하는 것으로 보인다.

15일 국토교통부의 '5월 전월세 거래량' 자료에 따르면 광주지역 전·월세 거래량은 2145건으로 전월(2515건)보다 14.7%, 지난해 같은 달보다 3.2% 줄었다.

1~5월 누적 전·월세 거래량 역시 1만 211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3.9% 감소했다. 전남은 1434건으로 전월(1812건)보다 20.9%, 전년 동월보다 8% 줄었다.

전국적으로는 11만6387건을 기록했다. 전·월세 거래 가운데 월세의 비중은 43.6%로 전월보다 1.2%포인트, 지난해 같은 달 대비 2.3%포인트 늘어났다. 월세 비중은 2011년 조사를 시작한 이후 지난해 1월의 46.7%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

전세 거래량은 전월의 12.2%,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 7.5%가 줄어든 6만5639건, 월세는 전월보다는 7.9% 줄었지만 지난해보다는 1.7% 많은 5만748건의 거래량을 기록했다.

전·월세 실거래가에 대한 세부정보는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 홈페이지(rt.molit.go.kr) 또는 한국감정원 부동산가격정보 애플리케이션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임동률기자exian@kwangju.co.kr



15일 광주시 서구 유스퀘어에서 보건소 직원이 터미널에 설치된 열 화상 감지기를 통과한 어린이의 체온을 확인하고 있다. (김호터미널 제공)

유·스퀘어 “메르스 확산 막아라” 방역활동 강화

소독 월 1회서 주당 1회로

24시간 열화상감지기 운영

광주종합버스터미널(유·스퀘어)을 중심으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산을 막기 위한 방역 활동이 강화되고 있다.

김호터미널은 그동안 한 달에 한 번 실시하던 터미널 소독을 주당 1회로 늘리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특히 소독 시 터미널의 의자와 복도뿐만 아니라 냉난방기 내부 등 터미널 구성구석도 방역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유·스퀘어에는 다중이용시설의 특성을 감안해 버스 도착함에 열 화상 감지기가 설치됐다. 이후 메르스 유입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해 보건소 직원과 협력, 24시간 체제로 열 화상 감지기를 운영하고 있다.

현재 터미널 측은 이용객 중 발열자가 감지되면 체온을 점검하고, 문진 결과에 따라 터미널 내에 마련된 임시격리공간으로 안내하고 있다.

이외에도 매표실과 화장실 입구, 복도

곳곳에 손 소독기 20대를 설치했으며 1시간 마다 3회씩 사내 방송을 통해 개인위생 관련 안내방송을 시행하고 있다.

터미널 인근 광천동의 기아차 광주공장도 15일부터 7월20일까지 6주 동안 매주 1회 방역을 실시한다. 방역지역은 광주공장 광천동 내방동, 유덕동, 광주 유니버시아드대회 선수촌이 있는 화정동이다. 메르스 방역은 차량을 통해 식약청 지정소독제를 분무 소독하는 방식으로 시행된다.

/임동률기자exian@kwangju.co.kr

새얼굴

“지역기관과 협업 中企 맞춤형 지원”

김영환 광주·전남중기청장

“중소기업인의 경영 애로를 발굴하고 정부의 각종 지원시책을 맞춤형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지난 12일 광주·전남중소기업청장 제17대 청장으로 취임한 김영환(49) 신임 청장은 “중소기업의 판로확대와 기술개발, 정책자금 등을 지원하는 기존 중소기업 정책과 나주혁신도시 입주기관, 지역 창조경제혁신센터, 지역 공공기관과의 협업을 결합한 창의적인 지원정책으로 지역 중소기업과 지역경제가 함께 발전해 나가도록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청장은 장흥 출신으로 석산고와 서울대학교 국제경제학과를 졸업했으며 미국 컬럼비아 대학교에서 경제학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33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공직을 시작했으며 산업통상부장, 통상협력총괄과장, FTA 무역종합지원센터 지원단장을 역임했다.

/임동률기자exian@kwangju.co.kr

대한민국 모두가 몸신이 되는 그 날까지!

나는 몸신이 **몸신**이다

이홍식 엄영란
조인희 변우민

MC / 정은아

이홍식 엄영란

CHANEL

[광주] 남구 서구 광산구 동구 북구 (CMB) 18

[광주] 동구 북구(광주방송) 20

순천 여수 여천 광양 고흥 14

목포 신안 무안 강진 원도 16

나주 화순 보성 담양 구례 곡성 18

해남 영암 진도 장흥

스카이라이프 13

IPTV 18

꿈을 담은 캔버스

채널A

www.ichannelA.com